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취업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현황

Career Choice and Employment Preparation Condition for EMT Students

박소미* · 최은숙** · 김미숙*** · 이경열**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직업은 한 개인의 삶의 본질을 결정하고, 삶의 내용과 가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기 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생에 있어서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대사이며,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이다. 각 개인은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만들고, 정보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선택하여 계획을 이행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직업을 선택하며, 성공적인 취업은 개인의 자존감을 고양시킨다. 그러나 최근 청년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직업선택의 과정에서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를 겪고 있다. 그동안 대학생의 진로선택과 직업 상담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왔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직업선택에 있어 학벌주

의, 연고주의, 혈연관계, 부모님과과의 진로 갈등 등이 개인의 진로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특히, Super(1957)의 진로 발달 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최초로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로서, 개인의 진로문제에 대해 가장 심각한 고민을 할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겪음으로 해서, 직업 상담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한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개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고, 특히 학교교육을 마감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준비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더욱 절실하고 구체적인 과제이다²⁾.

최근 경제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업이란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의 2010년 기준 연령별 실업률³⁾을 보면 20~29세 청년실업률이 남녀 합계 7.8%로 나타나 연령대 별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⁴⁾에 따르면 2010년 현재까지 9,255명의 1급 응급구조사가 배출되었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2010년 1급 응급구조사 취업 현황⁵⁾에서도 전체의 75.6%(6,996명)가 의료기관이나 소방 119구급대, 산업체, 이송업체, 군기관이나 공공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다양한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 공주대학교 영상보건대학 보건학부 전문응급구조학 전공, 공주대학교 건강산업연구소 연구원

*** 공주대학교 전문응급구조학과 일반대학원

투고일(2011. 3. 15), 심사완료일(2011. 3. 24), 게재확정일(2011. 4. 5)

교신저자: 최은숙(E-mail: eschoi@kongju.ac.kr)

대학에서의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평생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일과 같다.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 못지않게 전공할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적성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없다면 이 선택은 더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다⁶⁾.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적성과 흥미에 맞춰 합리적으로 대학에서의 전공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선택한 학과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면서, 그와 관련된 현장실습을 통해 직업적 의식을 갖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졸업 후 본인의 전공과 일치하고 적성과 흥미에도 맞는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내 실제 진로지도는 취업정보센터와 학생생활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취업정보 제공이나 단순한 심리검사의 실시와 해석이 대부분이다⁷⁻¹⁰⁾. 대학에서 각 전공의 특성에 따른 심도 있는 개별 진로지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인 진로지도의 일부는 학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응급구조(학)과는 병원전 응급의료 현장과 이송 단계,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1급 응급구조사를 배출하는 학과로서 1995년 전국의 11개 전문대학에 신설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4년제 대학교 15곳, 3년제 대학 22곳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해마다 늘고 있는 시점에서 졸업 후 한정된 분야로 취업지가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향후 배출되는 1급 응급구조사의 수요와 배출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취업처를 모색하고, 취업처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청년실업률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진로선택과 현재의 취업준비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다양한 취업처 확대와 학생들의 취업진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구조(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선택과 현재의 취업준비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응급구조(학)과 졸업생들의 다양한 취업처 모색과 진로지도에 있어 대학의 역할을 제시하고, 학과에서 진로지도에 활용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진로선택과 취업준비 현황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선택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과 진로에 대한 인식, 취업자신감을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과 진로에 대한 인식, 취업자신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5) 대학의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과 진로에 대한 인식, 취업자신감과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대상과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국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선택과 취업준비 현황을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4년제 대학 6곳의 665명과 3년제 대학 7곳의 921명으로 총 13개 대학의 1,5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각 문항의 구성은 선행연구들¹¹⁻¹⁴⁾ 중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현황과 관련된 문항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들이 재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 진로선택 관련 6문항, 취업준비 현황 관련 5문항으로 총 18문항이며, 진로선택 관련 문항 중 2문항과 취업준비 현황 관련 1문항은 4점 척도로 이루어진 Likert scale로 구성되었다. 연구도구는 33명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도출되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1) 진로선택

진로(career)는 프랑스어의 Carriere(경주로)라는 어원을 두고 있으며, 우리말로 번역한 진로(進路)는 ‘나아갈 길’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할 수 있다. 진¹⁵⁾의 연구에서는 진로란 사람의 삶 중에 ‘일’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준비, 형성 및 축적, 향후 전개되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4점 척도의 Likert scale로 조사하였으며, 선호하는 취업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취업자신감

취업이란 기본적인 삶을 영유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적정한 근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취업자신감이란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본인의 관련 분야 자격증 및 취업 정보 취득을 통한 취업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취업자신감은 대상자가 취업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4점 척도의 Likert scale로 조사하였다.

(3) 취업준비 현황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자각하는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을 4점 척도의 Likert scale로 조사하였으며, 대상자가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와 자격증 취득 현황, 취업준비 장애 요인을 조사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설문지의 배부와 수집은 2010년 8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학의 관계자 또는 대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기록하게 한 후 수집하였다. 전체 13개 대학에 1,769부를 배부하였으며 1,631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이 불확실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보인 45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1,586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SPSS)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진로선택과 취업준비 현황 파악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선택의 차이는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다.

3)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과 진로에 대한 인식, 취업자신감의 파악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과 진로에 대한 인식, 취업자신감과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로 사후검정 하였다.

5)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과 진로에 대한 인식, 취업자신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III.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진로선택과 취업준비 현황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남학생이 50.2%(796명), 여학생이 49.8%(790명)로 나타났다. 그 중 1학년은 34.6%(548명), 2학년은 27.4%(434명), 3학년은 28.2%(448명), 4학년은 9.8%(156명)로 나타났다. 누적평점은 'B⁺-B⁰'라고 응답한 학생이 53.0%(840명)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A⁺-A⁰'라고 응답한 학생은 34.7%(551명)였다. 전체 응답자를 수업연한에 따른 성별 분포로 다시 확인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3년제의 경우 남학생이 582명으로, 여학생 339명보다 높게 차지하고 있는 반면, 4년제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214명, 여학생이 451명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병원실습을 경험한 학생은 53.9%(855명), 경험하지 못한 학생은 46.1%(731명)로 병원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나 소방실습에서는 소방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44.8%(710명), 경험하지 못한 학생은 55.2%(876명)로 소방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취업진로선택

대상자의 취업진로선택 현황은 <표 2>와 같다. 대상자 중 1,375명(86.7%)이 졸업 후 취업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졸업 후 선택하고자 하는 취업진로로는 980명(61.8%)이 소방, 교정직등의 공무원을, 408명(25.7%)은 의료기관을, 86명(5.4%)은 진학 또는 유학을 선택하였으며, 응급의료정보센터 29명(1.8%), 전공관련 산업체 24명(1.5%) 순이었다.

졸업 후 선택하고자 하는 취업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준 사람으로는 본인이 967(6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이 292명(18.4%), 선후배 및 동기 135명(8.5%), 현직종사자 102명(6.4%) 순이었다.

취업진로를 선택한 이유는 2개까지 복수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하였는데 '전공을 살릴 수 있어서'가 482명(18.2%), '안정성'이 455명(17.2%), '적성과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86), 단위: 명(%)

요 인	구 분	수업연한		합 계
		3년제	4년제	
성별	남자	582 (36.7)	214 (21.4)	796 (50.2)
	여자	339 (21.4)	451 (28.4)	790 (49.8)
학년	1학년	361 (22.8)	187 (11.8)	548 (34.6)
	2학년	270 (17.0)	164 (10.3)	434 (27.4)
	3학년	290 (18.3)	158 (10.0)	448 (28.2)
	4학년		156 (9.8)	156 (9.8)
누적평점	A ⁺ -A ⁰	365 (23.0)	186 (11.7)	551 (34.7)
	B ⁺ -B ⁰	432 (27.2)	408 (25.7)	840 (53.0)
	C ⁺ -C ⁰	88 (5.5)	51 (3.2)	139 (8.8)
	D ⁺ -이하	20 (1.3)	10 (0.6)	30 (1.9)
	미응답	16 (1.0)	10 (0.6)	26 (1.6)
병원실습	예	521 (32.8)	334 (21.1)	855 (53.9)
	아니오	400 (25.2)	331 (20.9)	731 (46.1)
소방실습	예	429 (27.0)	281 (17.7)	710 (44.8)
	아니오	492 (31.0)	384 (24.2)	876 (55.2)

〈표 2〉 대상자의 취업진로선택

(N=1,586)

변 수	구 분	n (%)
졸업 후 취업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 있다	예	1,375 (86.7)
	아니오	211 (13.3)
취업진로선택	공무원(소방·교정직 등)	980 (61.8)
	의료기관	408 (25.7)
	진학(대학원) 또는 유학	86 (5.4)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29 (1.8)
	산업체	24 (1.5)
	응급환자이송단	7 (0.4)
	비전공	20 (1.3)
	기타	32 (2.0)
취업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본인	967 (61.0)
	가족	292 (18.4)
	선후배 및 동기	135 (8.5)
	현직종사자	102 (6.4)
	전공 교수	49 (3.1)
	기타	41 (2.6)
	취업진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 (복수응답)	전공을 살릴 수 있어서
안정성		455 (28.7)
적성과 소질에 맞아서		443 (27.9)
적정 수준의 연봉		422 (26.6)
임상경력을 쌓기 위해		198 (12.5)
근무조건(환경)		191 (12.0)
발전가능성(미래유망)		160 (10.1)
개인 사정		74 (4.7)
국가와 사회에 봉사		71 (4.5)
사회적 위치와 존경받는 직업		68 (4.3)
복지혜택이 많아서		55 (3.5)
기타		29 (1.8)

소질에 맞아서'가 443명(16.7%), '적정수준의 연봉'이 422명 (15.9%), '임상경력을 쌓기 위해'가 198명(7.5%), '근무조건(환경)'이 191명(7.2%), '발전가능성(미래유망)'이 160명(6.0%) 순이었다.

(3) 대상자의 취업준비 현황

대상자의 취업준비 현황은 <표 3>과 같다. 대학에서의 취업준비 역할 중 가장 필요한 것을 2개까지 복수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하였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994명(34.6%), '공무원 시험 준비 지원' 483명 (16.8%), '외국어(영어) 공부 지원' 476명(16.6%)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취업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역시 2개까지 복수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하였는데, '전공공부' 957명(34.3%),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647명(23.2%), '공무원 시험 준비' 431명(15.4%), '외국어(영어 공부)' 400명(14.3%)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도 2개까지 복수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한 결과 '외국어 실력 부족' 851명(33.7%), '채용정보 부족' 386명(15.3%), '자격증 취득 능력 부족' 336명 (13.3%), '학점 저조' 264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 여부에서는 보유한 자격증이 '있다'가 1,161명(73.2%), '없다'가 425명(26.8%)로 나

〈표 3〉 대상자의 취업준비 현황

(N=1,586)

변 수	구 분	n (%)
대학에 바라는 취업지원 역할 (복수응답)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994 (62.7)
	공무원 시험 준비 지원	483 (30.5)
	외국어(영어) 공부 지원	476 (30.0)
	취업진로 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227 (14.3)
	채용정보 제공	218 (13.7)
	실무 관련 업무 교육	155 (9.8)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	131 (8.3)
	체력 단련 지원	102 (6.4)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37 (2.3)
	주취업지 실무자 초청 특강	32 (2.0)
	기타	14 (0.9)
취업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복수응답)	전공 공부	957 (60.3)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647 (40.8)
	공무원 시험 준비	431 (27.2)
	외국어(영어) 공부	400 (25.2)
	실무 관련 업무 능력	115 (7.3)
	체력 단련	113 (7.1)
	채용정보 수집	68 (4.3)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	38 (2.4)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17 (1.1)
	기타	6 (0.4)
취업준비에 장애가 되는 것 (복수응답)	외국어 실력 부족	851 (53.7)
	채용정보 부족	386 (24.3)
	자격증 취득 능력 부족	336 (21.2)
	학점 저조	264 (16.6)
	신체조건 미달(체력 포함)	198 (12.5)
	실무 관련 업무 능력 부족	197 (12.4)
	진로지도 부족	139 (8.8)
	취업처 부족	118 (7.4)
	기타	37 (2.3)
	자격증 취득 여부	있다
없다		425 (26.8)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현황 (복수응답)	운전면허	776 (48.9)
	BLS-Provider	292 (18.4)
	수상인명구조	233 (14.7)
	스킨스쿠버	127 (8.0)
	기타	13 (0.8)

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전공 관련 자격증의 종류로 운전면허증 776명(53.9%), BLS(basic life support, 기본인명소생) provider 292명(20.3%), 수상인명구조 233명(16.2%), 스킨스쿠버 127명(8.8%) 순이었다. 그 외 기타 자격증으로는 Difficult Airway

provider 8명, BDLS(basic disaster life support, 기본재난인명구조) provider 5명 등으로 학과 특성과 밀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진로선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진로선택은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소방·교정직)을 선택한 비율이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73.2%, 여학생은 50.3%를 보여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의료기관으로 남학생의 경우 15.6%, 여학생은 35.9%를 보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의료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이나 유학을 선택한 비율은 남학생 5.7%, 여학생 5.7%로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수업연한으로 보면, 3년제의 경우 67.8%가 공무원을 선택한 반면 4년제는 53.5%가 선택하여 3년제 학생들의 공무원 선호도가 높았다. 의료기관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는 3년제에서 23.0%, 4년제는 29.5%가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4년제에서 의료기관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학 또는 유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3년제 3.5%인데 반해 4년제에서 8.1%로 나타나 4년제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병원실습을 경험한 대

상자에서 공무원을 선택한 비율은 59.6%,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에서는 64.3%로, 병원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에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실습을 경험한 대상자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한 비율은 29.1%, 병원 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에서는 21.8%로 병원실습을 경험한 대상자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학 또는 유학을 선택한 대상자가 많았는데, 병원실습을 경험한 대상자에서는 4.7%, 병원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에서는 6.3%로 병원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방실습을 경험한 대상자 중 공무원을 선택한 비율은 63.8%, 소방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에서는 60.2%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방실습을 경험한 대상자에서 25.2%, 소방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에서는 26.1%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진학 또는 유학을 선택한 경우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방실습을 경험한 대상자에서 4.9%,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에서는 5.8%로 차이가 거의 없게 나타났다.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진로선택

(N=1,586), 단위: 명(%)

특성	공무원 (소방· 교정직)	의료기관	진학· 유학	응급의료 정보센터	산업체	이송단	비전공	기타	χ^2	p	
남자	583(73.2)	124(15.6)	41(5.2)	8(1.0)	13(1.6)	4(0.5)	9(1.1)	14(1.8)	105.049	.000***	
여자	397(50.3)	284(35.9)	45(5.7)	21(2.7)	11(1.4)	3(0.4)	11(1.4)	18(2.3)			
3년제	624(67.8)	212(23.0)	32(3.5)	14(1.5)	8(0.9)	4(0.4)	9(1.0)	18(2.0)	42.885	.000***	
4년제	356(53.5)	196(29.5)	54(8.1)	15(2.3)	16(2.4)	3(0.5)	11(1.7)	14(2.1)			
병원실습	예	510(59.6)	249(29.1)	40(4.7)	17(2.0)	10(1.2)	1(0.1)	13(1.5)	15(1.8)	19.353	.007**
	아니오	470(64.3)	159(21.8)	46(6.3)	12(1.6)	14(1.9)	6(0.8)	7(1.0)	17(2.3)		
소방실습	예	453(63.8)	179(25.2)	35(4.9)	12(1.7)	8(1.1)	1(0.1)	11(1.5)	11(1.5)	7.828	.348
	아니오	527(60.2)	229(26.1)	51(5.8)	17(1.9)	16(1.8)	6(0.7)	9(1.0)	21(2.4)		
합계	980(61.8)	408(25.7)	86(5.4)	29(1.8)	24(1.5)	7(0.4)	20(1.3)	32(2.0)			

** p<.01, *** p<.001

3. 대상자의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과 진로에 대한 인식, 취업자신감

(1) 대상자의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

대상자들이 느끼는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학에서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44.4%가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55.6%가 ‘취업정보를 제공했다’고 응답하여 평균 2.56점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취업진로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취업진로에 대한 인식은 <표 6>과 같다. “선택할 수 있는 취업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가 1,229명(77.5%), ‘매우 잘 알고 있다’가 131명(8.3%), ‘모르겠다’가 218명(13.7%), ‘전혀 모르겠다’가 8명(0.5%) 순으로 나타나 85.8%의 대상자들이 취업진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평균 2.94점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취업자신감

대상자의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자신 있다’가 888명(56.0%), ‘자신 없다’가 487명(30.7%), ‘매우 자신 있다’가 185명(11.7%), ‘전혀 자신 없다’ 25명(1.6%) 순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67.7%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으며, Likert 점수는 평균 2.78점으로 나타났다.

<표 5> 대상자의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

(N=1,586)

내 용	n(%)				평균(M±SD)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제공하지 않았다	제공했다	충분히 제공했다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	94 (5.9)	610 (38.5)	783 (49.4)	99 (6.2)	2.56±.70

<표 6> 대상자의 취업진로에 대한 인식

(N=1,586)

내 용	n(%)				평균(M±SD)
	전혀 모르겠다	모르겠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취업진로에 대한 인식	8 (0.5)	218 (13.7)	1,229 (77.5)	131 (8.3)	2.94±.49

<표 7> 대상자의 취업자신감

(N=1,586)

내 용	n(%)				평균(M±SD)
	전혀 자신 없다	자신 없다	자신 있다	매우 자신 있다	
현재 취업에 대한 자신감	26 (1.6)	487 (30.7)	888 (56.0)	185 (11.7)	2.78±.66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과 취업진로에 대한 인식, 취업자신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가 인식하는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과 진로에 대한 인식, 취업자신감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일반적 특성과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에 따른 차이에서 성별($t=8.65, p=.000$), 학년($F=28.74, p=.000$), 수업연한($t=6.02, p=.000$), 누적평점($F=4.31, p=.002$), 병원실습 경험여부($t=-7.18, p=.000$), 소방실습 경험여부($t=-5.91,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년별로는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수업연한에서는 4년제보다 3년제, 평점에서는 누적평점 A, B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누적평점 D^+ 이하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병원실습 여부에서는 실습 경험자보다 미경험자가, 소방실습 여부에서는 실습 경험자보다 미경험자가 대학에서의 취업정보 제공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진로에 대한 인식은 성별($t=4.33, p=.000$)과 누적평점($F=2.50, p=$

0.41), 소방실습 경험여부($t=3.66,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 수업연한, 병원실습 경험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진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누적평점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실습을 경험한 대상자가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진로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과 취업자신감과의 차이에서는 성별($t=11.22, p=.000$), 수업연한($t=2.42, p=.015$), 누적평점($F=8.96, p=.000$), 소방실습 경험여부($t=2.25, p=.02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 병원실습 경험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취업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제 수업연한 대상자에서 취업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 누적평점 D^+ 이하인 대상자보다 누적평점 A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높은 취업자신감을 보였다. 소방실습을 경험한 대상자에서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취업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 취업진로에 대한 인식과 취업자신감의 차이

특성	구분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				취업진로에 대한 인식				취업자신감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성별	남자	2.71±.70	8.65	.000***		2.99±.50	4.33	.000***		2.96±.65	11.22	.000***	
	여자	2.41±.67				2.88±.47				2.60±.63			
학년	1학년 ^A	2.71±.66	28.74	.000***	A,B)C)D	2.89±.50	2.39	.067		2.77±.65	1.73	.160	
	2학년 ^B	2.61±.71				2.97±.50				2.77±.64			
	3학년 ^C	2.46±.71				2.95±.47				2.83±.67			
	4학년 ^D	2.19±.62				2.92±.46				2.69±.75			
수업연한	3년제	2.65±.71	6.02	.000***		2.95±.51	1.13	.258		2.81±.66	2.42	.015*	
	4년제	2.44±.67				2.92±.46				2.73±.66			
누적평점	A ⁺ -A ^{0A}	2.51±.73	4.31	.002**	C)A,B	2.97±.51	2.50	.041*		2.87±.65	8.96	.000***	A)C
	B ⁺ -B ^{0B}	2.56±.68				2.94±.46				2.76±.64			
	C ⁺ -C ⁰	2.67±.71				2.83±.52				2.56±.72			
	D ⁺ 이하 ^C	2.97±.67				2.83±.53				2.47±.86			
	미응답	2.42±.64				2.88±.43				2.62±.64			
병원실습	예	2.44±.72	-7.18	.000***		2.94±.50	0.47	.639		2.79±.68	0.82	.410	
	아니오	2.69±.65				2.93±.48				2.76±.65			
소방실습	예	2.45±.70	-5.91	.000***		2.98±.47	3.66	.000***		2.82±.68	2.25	.025*	
	아니오	2.65±.68				2.89±.49				2.74±.65			

* p<.05, ** p<.01, *** p<.001

〈표 9〉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과 취업진로에 대한 인식, 취업자신감과의 상관관계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	취업진로에 대한 인식	취업자신감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	1.00		
취업진로에 대한 인식	0.203(.000 ^{***})	1.00	
취업자신감	0.236(.000 ^{***})	0.356(.000 ^{***})	1.00

*** p< .001

5. 대상자의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과 취업진로에 대한 인식, 취업자신감과의 상관관계

대학의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과 취업진로에 대한 인식, 취업자신감과의 상관관계는 〈표 9〉와 같으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인식($r = .203, p = .000$)과 취업자신감($r = .236, p = .000$)이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취업자신감($r = .356, p = .000$)이 높게 나타났다.

IV. 고 찰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하고 취업하는 분야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자료로 확인하면⁵⁾ 의료기관이 43.1%, 소방 119구급대가 27.3%로 나타나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¹⁶⁾ 제41조에 명시된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도 극히 제한적이다. 아직 졸업 후 1급 응급구조사가 다양한 취업분야로 진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결국 대다수의 졸업생이 특정분야로밖에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며 시간이 흘러 제한된 취업분야의 인력이 충족된다면 이후 배출되는 인력은 고도의 취

업난을 겪을 것이 확인해진다.

유 등¹⁷⁾의 연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미국 기준인 인구 만 명당 5.6명에 따른 응급구조사 추계결과는 현재와 같은 법제도 하에서는 2018년에 포화되고, 1급 응급구조사 업무의 범위, 의로지도의 제한, 구급차 탑승의 의무 등이 개선된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2030년에 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여부에 따라 12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의 공급을 줄이는 방안과 응급구조사의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응급구조사의 배출은 교육기관과 양성기관의 입학자를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일부에서 제시하는 졸업자수 및 수료자수나 국가시험의 난이도 조정을 통한 인위적 조절은 부작용이 많으므로 피해야 하며, 응급구조사의 수요는 기존의 소방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건관리자와 같은 유망한 새로운 진출분야를 모색하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률 개선을 위한 고 등¹⁸⁾의 연구에서도 현재 3년제, 4년제 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자격 취득하여도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의 폭과 취업기회가 매우 적어 청년 실업상태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업무 범위를 보다 폭넓게 개선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업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업¹⁹⁾의 연구에서 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업무의 범위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1급 응급구조사의 수급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확인하였다.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응급통신관리자로서 질병상담, 병원안내, 구급차 출동연결 등의 활동²⁰⁾에서 품질관리를 포함하는 응급통신관리자로 영역²¹⁾을 넓혀가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응급처치교육이 활성화되어 응급처치강사로 활동하며, 소방방재청 설치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일선 학교의 안전교사로의 진출이 이루어진다면 1급 응급구조사의 수요는 매우 커지게 된다¹⁹⁾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응급구조(학)과 스스로 퇴보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응급구조사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자들의 이전 연구⁶⁾에서 조사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직업관은 이상적인 요소와 실제적인 요소 모두에서 적성과 소질, 적정수준의 연봉, 전공을 살리는 것, 안정성 등이 가장 높은 직업선택 요소로 나타났었다.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진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로 '전공을 살릴 수 있어서', '안정성', '적성과 소질에 맞아서', '적정수준의 연봉' 등을 선택해 서로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취업진로선택에서는 소방, 교정직이 61.8%, 의료기관이 25.7%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응급구조사가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폭이 그만큼 좁다고도 할 수 있겠다.

취업진로로 선택할 수 있는 취업처 중 응급환자 이송단을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1급 응급구조사 특별 채용 시 2년간의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조건에서 응급환자이송단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이 서울소방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소방조직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응급환자이송단은 주로 2급 응급구조사를 채용하는

것이 현실이며, 배출되는 1급 응급구조사의 수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송단의 주요 업무인 병원 간 전원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병원실습을 경험한 대상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병원실습은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방실습의 경험 여부는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은 소방실습 여부와 관계없이 입학이나 취업진로에서 모두 소방 119구급대원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취업처로 생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현재 대부분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지인 소방 119구급대에서의 구급인력의 채용에 있어서 전체 구급차(1,283대)에 1급 응급구조사 1명 탑승을 목표로 하여 '2012년까지 특별채용을 늘리겠다'고 소방방재청²²⁾에서 발표했으나, 이것은 현재 단기적인 현상으로 향후 몇 년 내에 구급대원의 채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과 개설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1~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후 퇴사하는 실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병원 응급실 근무자의 65.3%가 계약직 및 기간제이며, 정규직은 31.2%로 나타났다²³⁾. 이는 대다수의 1급 응급구조사들이 소방으로 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별 소방공무원 채용 응시 조건인 2년의 임상 경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부로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현상이 반복되어졌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1급 응급구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누적되어 대부분의 1급 응급구조사의 의료기관 근무조건이 계약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이유로 관련 법규에서의 업무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관련 법규에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극히 제한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업무 제한이 곧바로 취업처 제한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1급 응급구조사 수급 정책에 앞서 법규 개선이 논의되어야 한다.

다양한 취업처를 모색하기 위해서 산업체나 교육기관 등에서 1급 응급구조사를 응급의료관리자나 실기교사 등으로 고용되는 방안을 고려해보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에게는 1급 응급구조사의 폭넓은 진로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을 학년별로 학점화하여 교과목으로 편성한다면 학년별 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는 1학년 입학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며, 전공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올바른 진로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과, 병원실습과 소방실습의 중요성을 인식케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가 진로선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로관리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학의 취업지원 역할과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공무원 시험 준비 및 외국어(영어) 공부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학 또는 학과에서 관련 교과목(예: 응급의학영어, 임상영어회화 등)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임상실습이나 졸업 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또한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갖는 가장 큰 불만은 경비 부담과 소요 시간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과목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존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자격증 취득관련기관과 연계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겠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진로선택과 현재의 취업준비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다양한 취업처 확대와 학생들의 취업진로지도에 있어 대학의 역할을 제시하고 학과에서 진로지도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취업진로선택은 공무원이나 의료기관을 선호하고 있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전공을 살릴 수 있고 안정적이며 적성과 소질에 맞고 적정 수준의 연봉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선택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학에 바라는 취업지원으로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지원, 공무원 시험준비 지원, 외국어 공부 지원 등을 들고 있었고 학생들도 취업을 위해 그 분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취업정보제공에 대한 인식과 취업진로에 대한 인식, 취업에 대한 자신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56~2.94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평균 이상이였다. 각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개개인의 학생들에게 취업정보를 많이 제공해 줄수록 취업진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되며 그렇게 될 때 취업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이나 학과의 역할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각 대학에서는 취업지원센터나 학과의 지구노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지원을 위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취업진로지도에 대한 상담 역할에도 충실히 임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는 향후 1급 응급구조사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취업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1급 응급구조사들이 수행하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한 긍지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1)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취업진로지도와 취업 준비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교과목과 전공심화 자격증 취득 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2) 1급 응급구조사의 다양한 분야 진출 및 업무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현행 관련 법률과 정책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3) 의료기관에서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조은희. 대학생의 직업상담요구도 및 접근방법 분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 고향자.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 의사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의사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3.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2010년 연령별 실업률.
- 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의료인력, 1995~2010년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합격현황.
- 5. www.emt.or.kr.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 2010년 1급 응급구조사 취업현황.
- 6. 김미숙, 박소미, Wang Chengying, 서하얀, 주영주, 이경열, 최은숙.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만족도 및 직업관.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2010;14(3):29-40.
- 7. 김형만, 민무숙, 허현란. 여대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대학의 지원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2.
- 8. 박헌일, 김기원. 대학생의 진로지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교육학논총, 2002;23:99-126.

- 9. 이지연. 고등교육단계에서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4년제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 10. 진미석. NHRD와 대학의 진로교육. 진로교육 연구. 2001;13:61-80.
- 11. 김수영.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와 진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12. 임이은. 경호안전학 전공대학생들의 진로의식 조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13. 송민. 태권도학과 대학생들의 진로의식조사.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4. 한양금, 유지수. 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의식에 관한 실태조사. 치위생과학회지. 2010; 10(1):31-38.
- 15. 진미석. 성인진로개발지원체제 구축방안,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2003.
- 16. http://likms.assembly.go.kr. 대한민국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17. 유순규, 최혜경, 백홍석, 엄태환. 배출상수를 이용한 응급구조사 수급전망.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2007;11(3):65-79.
- 18. 고재문, 김진희, 조진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개선 방안.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2007;11(3): 17-30.
- 19. 엄태환. 1급 응급구조사의 수급에 관한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2003;7(1):55-64.
- 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2, 응급의료정보센터 연도별 활동상황.
- 21. 엄태환. 응급통신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재개발 방안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2001; 5(5):7-14.
- 22. 소방방재청. 네마뉴스 “생명사랑 실천 6대 아젠다 추진” 기사. 2010.06.16.
- 23. 이옥희. 대학병원 응급실 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직무만족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Abstract =

Career Choice and Employment Preparation Condition for EMT Students

So-Mi Park* · Eun-Sook Choi** · Mi-Sook Kim*** · Kyoung-Youl Lee**

Purpose : We investigated the career choice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EMT) students. The results of study will provide the base information about the consciousness for career choice and employment of the EMT students.

Method : We conducted 1,586 surveys from 665 students at six four-year colleges and 921 students at seven three-year colleges, from Aug. 27th to Oct. 31st in 2010. The result was analyzed by SPSS 18.0 using description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 :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male 50.2% and female 49.8%, and first grade 34.6%, second grade 27.4%, third grade 28.2%, and fourth grade 9.8%. The 53.9% of students had experienced the hospital training and the 44.8% did the fire station training. For the choice of job, there were the 61.8% student who hope to enter the employ in fire station or public service, while 25.7% students hope to be employed in hospitals. The reason for a wish job were 'majors-related job' in 18.2% students, 'employment stability' in 17.2% and 'hit on the aptitude and talent' in 16.7%, 'appropriate salaries' in 15.9%. In the questionnaire of the University what to assist you for job preparation, they chose the 'support for get major related license', 'support for officer exam preparation' and 'support of foreign language study' in 34.6%, 16.8% and 16.6%, respectively. For achieved licence, they had a driver's license in 53.9%, BLS (basic life support) provider in 20.3%, life guard in 16.2% and scuba in 8.8%.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as identified between the awareness of University that provides job information and one's career awareness ($r=.203$, $p<.000$), the awareness that University provide job information and one's confidence in employment ($r=.236$, $p<.000$), and one's career awareness and one's confidence in employment ($r=.356$, $p=.000$).

Conclusion : The most of EMT Students are well conscious of the their future employment and has prepared career to be employed their preference job.

Key Words : EMT students, Career choice, employment preparation

*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Hospital

**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Health Industry Research Institute

*** The graduate school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Eun-Sook Choi(eschoi@kongju.ac.kr)